**보도자료 03**

****

**3일의 짧고 강렬한 만남!**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돌아온다!**

**특별한 2차 포스터 & 로맨스 스틸 9종 공개!**

**2011년 개봉 당시 평단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표적인 가을 로맨스 명작으로 사랑 받아온 <만추>를 4K로 리마스터링한 버전 <만추 리마스터링>이 2차 포스터와 로맨스 스틸을 공개했다.**

[제작: 빅뱅컨텐츠㈜ | 제공:씨네라인 월드㈜ | 배급: ㈜에이썸 픽쳐스 |감독: 김태용 | 출연: 현빈, 탕웨이 외 | 개봉: 2023년 11월 8일]

**올가을, 당신을 설레게 할 로맨스 명작의 귀환!**

**‘그 계절, 다시 사랑에 빠지다’ 향수 가득한 2차 포스터 공개!**

**현빈X탕웨이의 섬세한 감정이 돋보이는 로맨스 스틸 공개!**



 

  

 



**<만추 리마스터링>은 감옥에서 7년 만에 특별 휴가를 얻은 여자 '애나'(탕웨이)와 누군가에게 쫓기는 남자 '훈'(현빈)의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그린 영화 <만추>를 4K로 리마스터링한 버전**으로 특별한 분위기가 담긴 2차 포스터와 로맨스 스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새롭게 공개된 2차 포스터는 ‘훈’(현빈)과 ‘애나’(탕웨이)가 서로를 응시하는 강렬한 모습으로 우연히 만나 특별한 사랑을 시작한 이들의 모습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 ‘**그 계절, 다시 사랑에 빠지다’**라는 카피가 더해져 여전히 가을이 오면 떠오르는 영화 <만추>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두 사람의 잊지 못할 사랑 이야기에 기대를 더한다.

함께 공개된 로맨스 스틸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시애틀로 향하는 ‘훈’(현빈)의 모습부터 감옥에서 7년 만에 특별 휴가를 얻어 시애틀행 버스에 탄 ‘애나’(탕웨이)의 모습과 함께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잠시 들른 휴게소에서 ‘훈’(현빈)이 ‘애나’(탕웨이)에게 직접 자신의 시계를 채워주는 모습은 이후 재회하게 될 두 사람의 이야기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기대를 모은다. 이어 시애틀이 처음이지만 잘 아는 듯이 행동하는 ‘훈’(현빈)이 오랜만에 시애틀을 방문해 낯섦을 느끼는 ‘애나’(탕웨이)를 이끌며 이곳저곳을 함께 거니는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서로를 마주 보며 점점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담긴 스틸을 통해 애틋한 감정을 선사하며 설렘을 예고한다. 특히 극 중 안개가 짙은 시애틀의 풍경은 기한이 정해진 서로의 만남에 쓸쓸함과 아련함을 더하며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이번에 재개봉하는 <만추 리마스터링>은 가을이 오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로맨스 명작인 <만추>의 영상미를 더 선명히 스크린에 담아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과 그 시절 가을의 설렘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2차 포스터와 로맨스 스틸을 공개하며 아련한 감성과 설렘을 자극하는 로맨스 명작 <만추 리마스터링>은 오는 11월 8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영 화 정 보**

**제목** 만추 리마스터링

**제작** 빅뱅컨텐츠㈜

**제공** 씨네라인 월드㈜

**배급** ㈜에이썸 픽쳐스

**감독** 김태용

**출연**      현빈, 탕웨이 외

**개봉**     2023년 11월 8일

**관람등급** 15세이상관람가

**러닝타임** 114분

**시놉시스**

수인번호 2537번 애나. 7년째 수감 중, 어머니의 부고로 3일간의 휴가가 허락된다.

장례식에 가기 위해 탄 시애틀행 버스, 쫓기듯 차에 탄 훈이 차비를 빌린다.

사랑이 필요한 여자들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는 그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중이다.

**“나랑 만나서 즐겁지 않은 손님은 처음이니까, 할인해 줄게요. 오늘 하루.”**

훈은 돈을 갚고 찾아가겠다며 억지로 시계를 채워주지만 애나는 무뚝뚝하게 돌아선다. 7년 만에

만난 가족도 시애틀의 거리도, 자기만 빼놓고 모든 것이 변해 버린 것 같아 낯설기만 한 애나.

돌아가 버릴까? 발길을 돌린 터미널에서 훈을 다시 만난다. 그리고 장난처럼 시작된 둘의 하루.

시애틀을 잘 아는 척 안내하는 훈과 함께, 애나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2537번,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름도 몰랐던 애나와 훈. 호기심이던 훈의 눈빛이 진지해지고

표정 없던 애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 오를 때쯤,

누군가 훈을 찾아 오고 애나가 돌아가야 할 시간도 다가오는데...